

“서로 팬됐다” ‘컬투쇼’ 경수진x윤시윤, 토크도 케미 만점

‘트레인’ 통해 호흡 맞춘 첫 인상 대해 얘기

경수진, 남다른 먹성...윤시윤, 독서광 면모

윤시윤과 경수진이 ‘컬투쇼’에 출연해 웃음 가득한 오우를 채웠다.
7일 오후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OCN 드라마 ‘트레인’의 배우 윤시윤 경수진이 출연해 DJ 김태균 유민상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트레인’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윤시윤과 경수진은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얘기했다.

윤시윤은 “저는 평소 경수진씨의 팬이었다”라며 “팬이어서 설렘 반, 동료에 반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경수진은 “드라마 ‘사이코 패스 다이어리’에서 윤동식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려서 실제로 보면 어떨까 궁금했다”라며 “굉장히 진지하고 배우로서 배울 점이 있다. 사람으로서 배려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촬영하면서 팬이 됐다”라고 얘기했다.

경수진은 자신의 남다른 먹성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경수진은 “유민상씨를 보니 ‘맛있는 녀석들’에도 꼭 출연하고 싶다”라며 “먹는 것을 참 좋아하고 진짜 잘 먹는 편”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친구들이 내 먹는 양을 보

고 놀라기도 한다”라고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 청취자는 자신이 경수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경수진이 전교회장을 했던 이력을 소개했다.

이에 김태균은 경수진에게 “공부를 잘했나 보다”라고 얘기했고, 경수진은 “똑똑하지는 않았고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민상은 “그래도 머리가 똑똑했던 거다”라며 “저 같은 경우는 반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반장은 무슨 반장이냐’라며 ‘오라부장해라’라고 했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시윤 남다른 독서광의 면모를 보였다.

윤시윤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다”라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어른들도 좋아해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게 독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시윤은 “주로 관심이 많았던 건 역사나 사회 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시윤은 만약 복권서트를 한다면 어떤 책으로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윤시윤은 “제가 ‘하트시그널3’도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제 나이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사랑인 것 같다”라며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 오후 10시30분 처음 방송되는 OCN 드라마 ‘트레인’의 본방송을 부탁한다는 인사를 남겨 기대를 높였다.

뉴스 1



‘놀면 뭐하니?’ ‘썩쓰리’ 7월25일 데뷔 확정

11일 녹음·안무 연습 공개

MBC ‘놀면 뭐하니?’의 혼성그룹 ‘썩쓰리’ 데뷔일이 확정됐다.

지난 4일 방송에서는 썩쓰리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깜짝 커버곡 선물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통해 최강의 팀워크를 뽐내며 오는 25일 데뷔를 확정했다.

오는 11일 방송에서는 신곡 ‘다시 여기 비가’ 녹음과 안무 연습에 돌입한 썩쓰리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놀면 뭐하니?’는 6주 연속 토요일 비드라마 TV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는 7월 1주 토요일



비드라마 부문에서 14.03%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또한 비드라마 전체 TOP5에 재진입하며 데뷔를 앞둔 썩쓰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스타 유산슬 라섹 유루페우스 유DJ 뿔디스파워 닥터유 유두래곤 등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수근 혼자 산골 식당 운영...나영석 PD와 ‘나홀로 이식당’

메뉴 선정·요리·서빙 등 혼자 도맡아 책임져



tvN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홀로 이식당’이 론칭한다. ‘삼시네세끼’ 후속으로 7월 중 처음 방송된다.

7월 중 처음 방송되는 ‘나홀로 이식당’ (연출 나영석, 양정우)은 이수근이 한여름 푸르른 강원도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벌어지

는 에피소드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산골 식당에서 이수근이 소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직접 요리, 미리 사전 신청을 통해 당첨된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강식당’에서 다른 멤버들과 합을 맞춰 분업했던 것과는 달리, ‘나홀로 이식당’에서는 홀로 식당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신선한 재미가 예고된다.

‘나홀로 이식당’은 ‘채널 심오야’의 달나라 공약 이행 프로젝트 2탄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채널 심오야’의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달나라 공약 대신 약속한 은지원, 이수근 개인 프로젝트의 일환인 것, 은지원 프로젝트로 잭스키스의 합숙 라이

프 ‘삼시네세끼’를 선보인 데 이어, 연속으로 이수근과 함께 ‘나홀로 이식당’을 오픈해 애청자들의 여름을 웃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양정우 PD는 “‘강식당’에서 공식 만능 일꾼처럼 활약했던 이수근이 혼자서 ‘나홀로 이식당’을 운영하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과정에 부딪힐 예정이다.”

메뉴 선정, 요리, 서빙 등 산골 식당의 하나부터 열까지 도맡아 책임져야 하는 이수근의 고군분투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나홀로 이식당’은 ‘아이슬란드 간 세끼’, ‘마포맛쟁이’, ‘삼시네세끼’를 잇는 5분 편성물이다. 본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심오야’를 통해 풀버전이 공개되어 확장된 즐거움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유, 7월 컴백 대전 합류...“신곡 활동 준비중”

“색다른 매력 담은 음악·무대...기대 부탁드린다”



가수 소유가 7월 가요계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소유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7일 “소유가 오는 7월 말 컴백을 목표로 신곡 활동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색다른 매력을 담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소유에게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유는 가요계를 넘어 연예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행보를 걷고 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첫 번째 파트 ‘리:본(RE:BORN)’과 ‘기우는 밤’을 통해 감성적인 보컬을 선사한 소유는 2018년 10월 두 번째 파트 ‘리:프레시’(RE:FRESH)와 ‘까만밤’을 통해 첫 정규앨범을 완성하며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또 ‘벌어진다’ 작사에 참여하고 앨범 자체 프로듀싱에 함께하며 음악적 발전도 이뤘다.

이뿐만 아니라 매드클라운과 ‘착해 빠졌어’를 시작으로 정기

고와 ‘썸’, 어반자카와와 ‘름, 백현과 ‘비가와’, 권정열과 ‘어깨’ 등의 콜라보레이션 곡을 발표했고, 드라마 ‘도깨비’ OST ‘아이 미스 유’(I Miss You)를 비롯해 ‘구르미 그린 달빛’ ‘동백꽃 필 무렵’ ‘오 마이 베이비’와 예능 ‘트레블러’ 등의 OST에 참여했다.

대부분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KBS 드라마스페셜 ‘때때로 광대’로 연기에 도전하고, 유튜브 채널 ‘소유기(記)’를 론칭하기도 했다.

이처럼 넓은 스펙트럼으로 ‘전천후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소유가 이번에는 어떤 음악과 무대로 가요계를 찾아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유노윤호, ‘워크맨’ 첫 단독 웹 예능 도전

새로운 캐릭터 발굴 계획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그동안 PD와 손을 잡고 데뷔 후 첫 단독 웹 예능에 도전한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에이앤이 네트워크(A+E Networks) 측은 7일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데뷔 후 첫 단독 MC에 도전하는 웹예능을 오는 8월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인기 웹예능 ‘와썹맨’ ‘워크맨’을 처음 기획, 제작한 원년 제작진이 참여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에이앤이 네트워크 디지털 스튜디오는 유노

윤호와 웹예능 제작 공개에 앞서 가수 황광희와도 웹예능 제작을 공개한 바 있어 화려한 하반기 라인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워크맨을 연출했던 고희완 PD를 비롯해 ‘와썹맨’ ‘워크맨’ 등 히트작을 선보여 온 제작진이 묻혀 ‘열정 부자’ 유노윤호의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해 낸다는 계획이다.

유노윤호는 남다른 에너지의 소유자답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프로페셔널한 매력으로 ‘예능 블루칩’에 등극, 다방면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웹예능을 통해 새롭게 발견될 색다른 모습에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은다.

방탄소년단, 104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세계 신기록’

팝가수 아델 뛰어넘어

그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팝가수 아델을 넘어선 신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월 발매한 정규 4집의 선공개곡 ‘블랙 스완’(Black Swan)이 6일(이하 현지시간) 기준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04개국에서 정상을 기록했다. 선공개 당시 93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블랙 스완’은 발매 6개월 만에 네발, 짐바브웨, 가보 베르데 등에서 새롭게 1위에 오르며 신기록을 수립했다.

미국 포브스 등 외신들은 6일 “방탄소년단이 아델의 이전 기록을 깨고 아이튠즈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발매된 아델의 ‘헬로’는 당시 102개 지역 아이



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5년여 만에 아이튠즈 104개 지역에서 정상을 오르며 아델의 기록을 넘어 세계 됐다. 방탄소년단 팬 아미

(팬덤명)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BlackSwan104Win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이 같은 기록을 지축했다.

일리네어 레코즈, 10년만에 해산

더콰이엇 “그동안 감사”

래퍼 도끼, 더콰이엇 등이 소속돼 있던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가 해산한다.

일리네어 레코즈는 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0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콰이엇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

계망서비스에 “그동안 감사했다”라며 해산 소식을 전했다.

앞서 9년간 일리네어 레코즈에 속해 있던 빈지노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리네어 레코즈와) 마무리 얘기가 오고 간 것 같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라기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운 관계다. 결별 방식도 다르게 하고 싶었다”고 전한 바 있다.